

원시 儒家의 평화 사상: ‘大同’과 ‘平天下’

양 방 주*

목 차

- I. 서 론
- II. 유가사상의 평화 사상적 성격과 토대
- III. 대동(大同)의 이상과 소강(小康)의 구현 방안
- IV. 평천하(平天下)의 이론과 방법
- V. 결 론

I. 서 론

오늘날 인류 사회는 냉전 체제의 종식과 세계화, 정보화로 상징되는 개방의 물결 속에서 이해와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쟁과 수많은 분규로 인해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제적인 분규 상황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영향을 받고 있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립·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할 처지에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에 대한 갈망이 크고 평화 운동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 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사실 평화의 문제는 어느 지역·어느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원적인 생존욕·종족보존욕 등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욕구와 더 나아가 권력욕 등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갖고 있고, 또한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서로간의 오해와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데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다가 자연 및 사회 환경의 유한성으로 인해 대립·갈등·투쟁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존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의 한 축은 전쟁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의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가 되었고 따라서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평화 사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평화의 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연구하고 구체적 사상을 제시해온 서구의 전통적인 평화 개념을 보면 평화는 어원학적으로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데 그밖에 모든 존재의 가장 조화적인 상태를 구성하는 기본 실체인 삼각수에 의거한 조화의 의미와 히브리 사상에서 유래하는 완성의 의미로서의 “샬롬” 등의 의미를 갖는다.¹⁾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하는 평화 사상들은 전쟁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합리화하는 우를 범하므로 현대적인 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쟁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객관적 원리와 목적의식이라는 양면에서 규명해야하고 동시에 전쟁이 가져올 결과를 규명하고 전쟁 방지의 정책과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²⁾ 또한 단순히 전쟁(타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으로 부터의 도피와 같은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려 하거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만을 말하는 자연 생태계의 평형과 질서를 추구하거나, 어떤 절대적 존재 혹은 힘에 의존해 평화를 추구하는데서 오는 문제점들을 안게 된다고 비판되기도 한다.³⁾

그렇다면 동양의 평화 사상은 어떠한가. 실제로 동양 사상에서는 서구에서와 같이 평화를 주제로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평화 사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요한 동양 사상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서구에서와는 달리 동양 사상 자체가 평화의 실천을 추구하는 사상들이라 할 수 있다. 동양 사상의 기원이 되고 있는 제자백가의 출현은 춘추전국시대 제후국들이 부국강병을 목표로 수많은 전쟁을 치름으로서 백성들이 직접적인 생명의 위험은 물론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으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와 질서를 이루고자 한데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그들 사상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 평화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평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각기 사상들은 나름대로 전쟁에 관한 견해를

1) 김완수(1995).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의 평화의 문제”, 『평화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p.19

2) 철학대사전(1970), 학원사, pp.1156-1157

3) 유인희(2004). “인류평화철학 논의의 조건들” 『평화의 철학』(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 연세대학교철학연구소·한국동서철학연구회, p.i

전개하고 있는데 도가의 비전론(非戰論), 묵가의 반전론(反戰論), 법가와 병가의 농전론(農戰論)과 주전론(主戰論), 유가의 의전론(義戰論) 등이 그것이다.⁴⁾

이와 같은 일반적 견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함에 앞서 우리의 전통적인 평화 사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통 사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동양 사회, 특히 우리 전통 사회의 주류 사상으로 자리 매김해온 유가(儒家)의 평화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가의 평화 사상은 시대와 인물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을 살펴보기 위해 원시 유가사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시 유가의 중요 인물 중에서는 공자(孔子)를,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大學)」의 평천하와 「예기(禮記)」의 대동을 다루고자 한다. 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함은 원시 유가의 대표적인 세 사상가 중 다른 학파와의 대립이 치열해지기 이전 즉 맹자(孟子), 순자(荀子) 이전 다시 말하면 공자와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대학」과 「예기」 예운(禮運) 편을 주로 다루는 이유는 이것들이 원시 유가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고 평화의 문제를 다른 경전들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제한을 두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과 「예기」 예운 편에 대해서는 저자, 저작 시기, 저작 의도, 다른 경전 혹은 같은 경전의 다른 편과의 내용 체계상 상이점 등에 대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논란에 대해 일반적인 통설을 토대로 원문의 내용 그 자체에 충실하여 다루려고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고찰 대상의 개념과 논리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보다는 사상적인 면 즉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을 소재로 평화의 실현 방법과 이상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II. 유가사상의 평화 사상적 성격과 토대

과연 유가사상을 평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전통 사회에 실질

4) 송영배(1992), "제자백가의 다양한 전쟁론과 그 철학적 문제의식(I)", 「시대와 철학」 제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p.153 재인용. 정인재(1995), "중국의 평화사상" 「평화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p.270

적으로 영향을 미친 도학(道學)으로서의 신유학은 정통성과 의리 정신을 강조하는 강한 배타적 성격을 지닌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왕조와 기득권을 합리화하고 중국[漢族] 중심의 존화양이(尊華攘夷)사상의 근원이 되며 의전론(義戰論)에 입각한 전쟁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차별적인 신분제와 종법제를 시행하는 등 평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대 상황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거나 기득권층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일시적 변용일 뿐이고 원시 유가에 나타나는 유가의 평화 사상으로서의 본질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가사상은 언제나 난세를 극복하여 온 세상에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자연 법칙에 순응하거나 고도의 인위적·타율적 힘이나 제재에 의하는 사상과는 달리 인간성을 토대로 개개인의 수양과 사회의 예적(禮的) 질서 확립, 덕에 의한 통치 등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독자적 방법을 꾸준히 추구해온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개념적으로 보더라도 서구의 평화 개념과 일치하는 용어를 유가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평화의 개념을 우리가 우선 내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심화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없는 소강(小康)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의 번영이 유지되는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유가야 말로 그러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⁵⁾ 또한 평화의 범주를 세분하여 그 개념을 고찰해보면 평화란 개인적으로는 마음과 몸이 평안한 상태,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화목과 평온이 이루어진 상태, 국가적으로는 국가 사회에 내우와 외환이 없는 상태, 국제적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형제가 되어 하나의 세계 공동체를 지향하는 상태이다.⁶⁾ 이런 면에서 보면 「대학」과 「예기」의 예운 편은 유가 평화 사상의 전범(典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평화란 용어는 서양의 'peace'를 번역한 말로서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전쟁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은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억제력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발생한 전쟁은 진압하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 평화

5) 송영배(1999), "유교의 '이상적 사회'관과 평화의 윤리", 「유교사상연구」 11집, 한국유교학회, p.5

6) 오석원(1999), "유교의 대동사회와 평화사상", 「유교사상연구」 11집, 한국유교학회, p.61

(平和)라는 한자용어는 평(平)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평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외적, 형식적, 정치 군사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화평, 평안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왔는데 이는 화(和)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의하면⁷⁾ 화(和)는 주로 온화(온순·따뜻함·인자함), 화목(사이가 좋음), 화합, 고름(조화·순조로움), 순함(부드러움·조용) 등을 의미한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화(和)의 내적·정적인 면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동양에서 추구하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따뜻하고 순한 마음을 가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분수를 고려하여 사양하고 배려함으로써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 순리에 따라 해결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공자는 이러한 화평, 평안의 상태는 도(道)가 실현될 때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이라 보았다.⁸⁾ 공자는 당대(當代)의 사회적 무질서와 제후국간의 전쟁 등에 의해 정치·경제적으로 삶이 위협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그 원인을 전래해오던 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 보고 이를 회복하여 평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공자는 요(堯)·순(舜)·우(禹)·탕(湯)의 시대에는 도가 제대로 행해져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그 후 도를 잃게 되자 주(周)나라가 이를 다시 바로 잡았는데 그 후 시간이 흘러 다시 무도(無道)의 시대가 되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는 토대로 주나라 초기의 주공(周公)에 의한 제례작악(制禮作樂)의 정신을 되살리려고 하였다. 당시에 도 사회질서의 토대로서 예(禮)는 있었으나 예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식화되어 그 근본정신을 잃어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근본정신인 인(仁)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예가 지배층을 위주로 행해지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코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의 지식인과 통치자인 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예를 통한 인간 본연의 회복과 사회 질서의 확립으로 우선 소강(小康)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덕을 행하는 대동사회를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자의 이상적 사회관과 역사 인식, 그리고 그를 구현하는 방안이 유가 평화 사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7) 민중서림 편(1981), 『新字海』

8) 이하는 정인재(1995), 앞의 글, pp.247-249 참조

Ⅲ. 대동(大同)의 이상과 소강(小康)의 구현 방안

1. 대동과 소강의 평화와 그 특징

「예기」 예운 편에서는 유가 평화 사상의 이상인 대동을 밝히는 한편 현실에서 소강을 구현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도(大道)가 행해졌을 때는 세상을 공(公)적인 것으로 여겨 어질고 유능한 자를 선택하여 [천자로 삼았으며] 믿음을 가르쳐 찾고 화목함을 닦아 행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만을 오로지 부모로 모시거나 자신의 자식만을 오로지 자식으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에게는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게 하고, 장년인 사람에게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는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홀아비와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사람, 몹쓸 병에 걸린 사람 [등 모든 어려운 사람]에게는 부양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남자에게는 직분을 갖게 하고 여자에게는 돌아갈 곳(가정)을 갖게 하였다.

재물이 땅에 [헛되이] 버려지는 것을 나쁘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자신에게 숨겨두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나쁘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간사한 꾀는 막히어 일어나지 않았고,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그래서 바깥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다. 이를 일러 대동(大同)이라 한다.⁹⁾

여기서 말하는 대동이란 온 세상 사람들과 일이 공화(公化)되어 사사로움에서 비롯된 온갖 우환과 대립·투쟁이 사라짐으로써 크게 도(道)를 같이하는 평화로운 상태 또는 그러한 사회를 일컫는다 하겠다. 이때의 동(同)은 화이부동(和而不同)¹⁰⁾에서의 동(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뜻이다.

한편 사회 이념적 측면에서 보면 대동사상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는 공동체 사회 즉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공의(公義)가 구현되는 사회라 할 수 있

9) 「예기」 예운 편 (원문생략)

10) 「논어」 자로 편. 이 때의 同은 이익을 좇아 무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이런 면에서 사적인 측면이 강한 소강의 사회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대동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公)의 개념은 사사로움이나 불평등이 없는 공평무사(公平無私)이다. 모든 사회적 행위는 공의(公義)를 토대로 한다. 그리하여 능력과 인격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대접을 받으며, 경계에 있어서는 개인의 필요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재화는 사사로이 낭비하거나 모아 두지 않고 公적으로 이용되는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동사상이 지향하는 공동체 사회는 여타 유사한 사회 체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관계의 신뢰와 화목을 바탕으로 한 도덕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양심과 사랑, 그리고 상호 신뢰와 공존의식 등 도덕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뭉쳐진 사회'이므로 대립과 갈등,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¹¹⁾ 대동의 조건은 전설적 이상사회의 지도자들이 행하였던 대도가 행해짐으로써 천하가 공화(公化)되어 지도자가 선양에 의해 선출되고 그는 믿음과 화목함을 가르쳐 구하고, 닦아 행한다. 즉 공적 자세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감화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부모와 자식들처럼 대하게 된다. 그 결과로 늙은이·젊은이·어린이 심지어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외롭고 병든 사람들도 제대로 대접받게 되고, 사람에 따라 합당한 직분과 처치가 주어지며 나아가서는 경제생활에 근본이 되는 재화와 노동력은 비록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사로이 쓰이지 않고 공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면 권모술수가 통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생기지 않아 대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즉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남과 구분 짓는 경계가 사라진 상태가 된다. 경계가 사라짐은 바로 모두가 같아진 결과이다. 공자는 이를 대동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자가 대동사회의 선결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동사회는 현실적으로 볼 때 갑자기 저절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자는 단계적으로 현실사회에서는 어떤 평화를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대도가 사라진 현실에서 우선 추구해야 할 평화를 소강이라고 하였다.

11) 오석원(1999), 앞의 글, pp.64-65

오늘날은 대도가 자취를 감춰버려 세상만사가 개인의 집안일로 치부되고 있다. 저마다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모시고, 제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며, 재물과 힘들여 일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 지도자의 지위는 세습되는 것을 예로 삼고, 성곽과 그를 둘러싼 물도랑을 견고하게 한다. 예의로써 근본을 삼아 군신관계를 바로잡고, 부자사이를 돈독하게 하며, 형제사이를 화목하게 한다. 제도를 만들어서 전리(田理)를 새우고, 용맹과 지혜를 얻은 것으로 보며 자신을 위하여 공을 쓴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간사한 꾀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禹)·탕(湯)·문(文)·무(武)·성왕(成王)과 주공(周公)은 이를 잘하여 뛰어난 사람들로 이 여섯 군자들은 예를 삼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로써 의(義)를 드러내고, 믿음을 이루고, 허물을 밝히려고, 인(仁)을 법으로 하여 겸양을 강구하여 백성들에게 상도(常道)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일 이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세가 있는 자라도 제거하였고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되게 하였다. 이것을 소강(小康)이라 한다.¹²⁾

소강이란 크게 보아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구체적 일들 하나 하나에서 이루어져 겨우 유지되는 평화의 상태 또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대도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일이 사사로움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간사한 계략과 모의가 생기고 전쟁도 일어난다. 이러한 시대의 지도자들은 예로써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스스로 예를 삼가하여 행함으로서 의리를 밝히고, 믿음을 이루고, 허물을 밝히고, 어짐을 본 받게하고, 겸양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떳떳한 법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비록 권력을 가진 자라 해도 내쫓아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를 재앙으로 여기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평화의 상태가 바로 소강이다.

이와 같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소강의 평화는 덕의 감화에 의해 사람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는 행위규범과 제도를 통해 치자(治者)에 의해 이루어진 다는 면에서 이상적인 대동의 평화와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소강의 평화를 통해 공자의 평화 사상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의 모색, 단계적 성취,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한 질서 확립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12) 「예기」 예운 편 (원문생략)

2. 소강의 예적(禮的) 구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강의 특징은 다스림에 의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유가 이외의 여러 사상에서 말하는 다스림과는 다른 면이 있다. 유가는 그 다스림이 덕을 갖춘 성인·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방법은 예에 의한다는 것이다. 다스림의 근본은 천(天)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천(天)을 섬기고 그 이치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림의 목표는 화(和)를 이루는 것이다. 화(和)는 조화와 화합의 평화다. 화는 천지(天地)와 조상의 신(神)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에 이루어진다. 다스림의 방법은 예를 통해 질서를 이루고 인정(人情)을 순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스림의 주체인 지도자의 모범과 제도와 풍습에 의한 제한적인 강제에 의한다.

예(禮)란 본래 고대에 음식을 바쳐 귀신을 공경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인간은 문화적 발전에 의해 많은 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얻게 되었고 이를 갖고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은 장사지내서 귀신과 상제를 섬기게 되었다.¹³⁾ 이러한 행위는 점차 복잡해졌고 따라서 절차와 형식, 종류가 형식화·체계화되기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정해지면서 사회 질서의 근본인 제도와 풍습으로서의 예가 생겨났다. 후대에 이르러 예가 문란해지고 사회는 난세에 처하게 된 것이다. 예는 하늘의 도(道)에 근본하고, 땅의 도(道)를 본받으며, 귀신의 도(道)와 합하여 길흉(吉凶)의 제사, 활쏘기와 말타기의 법칙, 성인식과 결혼식 그리고 아침과 저녁 문안의 의식 등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다. 또한 예는 바름과 바르지 못함이 뒤섞이지 않도록 구별하고,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하고, 사람을 신(神)에 접근시키고 또는 제도나 규칙을 만들어내고, 인위와 도덕을 세우는 것이다.¹⁴⁾

이러한 내용과 성격으로 인하여 예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¹⁵⁾ 왜냐하면 정치란 원래 성인(聖人)의 사업으로서 성인이 천지의 중간에 서서 모든 신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인류를 가르쳐 이끌기에 애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인이 천지·귀신의 도에 더해서 분명히 알고 그를 바탕으로

13) 이민수 역해(1983), 「예기」 중권, 수문서관, pp.38-39

14) 위의 책, p.37, pp.47-48

15) 위의 책, p.46

을 예의 체계를 만들어 내며, 만인이 기뻐하는 바를 충분히 생각하여 행하는 것이다.¹⁶⁾ 예는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의 근본이자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스리는 자는 예를 바로 세우고 그를 행함에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도자를 본받아 스스로 다스리고, 지도자에 의탁하여 스스로 편안하고, 지도자를 섬겨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예가 널리 행해지고 분수가 정해져서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며 살수 있는¹⁷⁾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비롯된 예는 예제(禮制)를 낳았고 여기서 다시 예의·도덕이 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예는 선왕(先王)이 하늘의 도를 받아서 사람들의 심정을 다스린 것이다. 앞서의 예가 천도에 통하는 것이라면 이 예는 인정(人情)을 순하게 하는 것이다.¹⁸⁾

사람에게는 7정[七情 - 喜·怒·哀·懼·愛·惡·慾]과 10의리[十義理 - 慈·孝·良·弟·義·聽·惠·順·仁·忠], 믿음을 강구하고 화목함을 다지는 이로움[利], 다투어 싸우고 서로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患]이 있고 그 밖에 음식과 이성(異性)에 대한 큰 욕심과, 죽음과 가난의 고통에 대한 큰 싫어함이 있다. 이것들은 예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⁹⁾ 성인은 도덕·예의·법률 등을 제정함에 있어서 인정을 그 시행처로 보았다.

예와 예절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 때에 맞추어 차이가 있도록 정해져 일률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풍성하고 화려하게 행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절약하고 소박하게 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하여 예가 사람의 성정(性情)을 잘 인도해서 위험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한다. 바로 성왕(聖王)의 정치는 예로써 인간 성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²⁰⁾

한편 이러한 예의 정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의·예절 생활을 하게 한다. 예는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있어서 (冠·婚·喪·祭·射·御·朝聘 등) 인간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를 행함으로써 서로가 신뢰와 친목

16) 위의 책, p.37

17) 위의 책, p.49

18) 위의 책, p.36, p.59

19) 위의 책, p.52

20) 위의 책, p.65

을 두텁게 하여 단결을 강하게 한다. 또한 예는 부모를 살아서나 죽어서도 잘 모시고 모든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복을 비는 수단이며, 천도를 존중하고 인정을 소중히 여기므로 사람의 생활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²¹⁾ 그러므로 성왕의 정치가 행해지면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은 거짓 없이 윗사람을 잘 모시게 되어 서로 신뢰를 돈독히 하고 다투지 않아 화목한 태평성세가 이루어지게 된다.²²⁾

IV. 평천하의 이론과 방법

1. 평천하의 개념

평천하는 일반적으로 볼 때 천하가 화평한 상태와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이상(理想)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대학」에서의 평천하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천하란 일반적으로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중국에서는 문화적인 그들의 세계와 그렇지 못한 주변의 세계를 모두 가리켰던 것으로 보이며 천하라는 말이 출현한 시대를 고려해 보면 처음에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단순한 의미로 쓰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을 사용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알았던 세계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지상의 모든 자연 및 인간을 포함하고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보편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하를 인간과의 관계로 국한시켜 파악할 경우에 그것은 인간 자체와 그들의 생활 영역을 뜻하는 세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주(周)나라를 종주(宗主)로 하는 모든 제후 국들의 집합체” 즉 “천자에 의해 통치되는 곳”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보다 근본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간의 도덕적 자각에 의한 결실인 인(仁)을 실천하고 실

21) 위의 책, pp.60-61

22) 위의 책, p.65

현하는 장(場)으로서의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천하관은 “각 시대의 정치 상황과 상당부분 맞물리면서 변화되어 왔다.” 「대학」에서의 천하의 의미는 「대학」이 의도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한 세계 질서와 세계 평화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천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공유되는 정치적 이상의 실현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²³⁾ 이것은 매우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면을 고찰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당시의 현실적 입장에서 ‘천자와 관계되는 모든 제후국들의 집합체’로서의 정치적 의미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천하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상태를 이룬다 함인가? 이를 논하기에 앞서 평(平)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의하면²⁴⁾ 평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평화와 관련해 볼 때 마음이 편함, 돌출이 없이 고름, 귀천·우열이 없어 균등함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와 상대와 화목하게 지냄, 적을 진압함, 사태를 진정시킴, 고루 다스려짐과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의 평천하는 전자의 평화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성취, 구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의 중국인들은 정착 농경생활을 하면서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가 흐르면서 힘을 가진 다수의 집단이 나타나 이들 간에 대립·갈등이 심화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족(異民族)과의 대립·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는 혼란해져서 평화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통해 상대를 제압, 제거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국가, 지역, 특정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평화가 그들만의 것이 될 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궁극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사상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 중의 하나로서 유가가 생각한 평천하는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천지만물을 일체로 삼는 화해(和諧)라는 관념이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보편적 덕성에 근거하여 도덕적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었다.”²⁵⁾ 이것이 진정으로 온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평천하의 논리와 방법을 직접적으로 보여

23) 김철운(2001), 「유가가 보는 평천하의 세계」, 철학과 현실사, pp.52-57, pp.77-79

24) 민중서림 편(1981), 「新字海」

25) 김철운(2001), 앞의 책, pp.85-86

주는 것이 「대학」의 3강령 8조목이다.²⁶⁾ 3강령은 그 철학적 토대이고, 8조목은 그 단계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2. 3강령: 평천하의 이론적 바탕

3강령의 첫째는 밝은 덕을 밝히는 것[明明덕(明明德)]이다. 여기서 명덕이란 인간이 타고난 자명한 도덕성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 도덕성의 실현 가능 근거, 그리고 그것의 실현태로서 인격까지도 포함된다.²⁷⁾ 명명덕이란 이러한 명덕을 밝히는 행위이다. 내용적으로는 자신의 명덕을 자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명덕을 자각하게끔 해주는 것을 망라한다. 또한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덕을 해명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이 행위의 전통적 해석은 명덕에 대한 이론적 해명뿐만 아니라 그를 체험적으로 보여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자각하게 해주는 행위이다. 이는 평천하가 현실적으로는 덕을 갖춘 지도자에 의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첫 번째 강령은 평천하의 가능 근거와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3강령은 물론 8조목의 핵심이라 하겠다.

3강령의 둘째는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신민(新民)]이다.²⁸⁾ 이것은 사람들

26) 원문 중요 내용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있으며, 지극히 선한 데에 머무름에 있다.”

“옛적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 하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였고, 그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을 수양했으며, 자신을 수양하려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였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그 뜻을 정성되게 하였고, 그 뜻을 정성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아는 것을 극진히 하였다. 그 아는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데 있다.”

“사물의 이치가 연구된 후라야 앞에 이르게 되고, 앞에 이론 후라야 뜻이 정성스러워지고, 뜻이 정성스러워진 후라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후라야 자신이 수양되며 자신이 수양된 후라야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고, 집안이 가지런하게 된 후라야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고,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진 후라야 천하가 화평하게 된다.”

27) 명덕에 대해 「대학」에는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인간 본성과 덕에 대한 여러 견해와 「대학」 전체의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이 파악된다.

28) 이에 대해서는 백성을 새롭게 함[新民]과 백성을 사랑하며 편안케 한다[親民]는 두 설이 있으나 한국에서 주로 인정되어온 바에 따라 신민(新民)으로 한다.

스스로가 새로워지도록 다시 말하면 명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학의 정치는 교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화란 예의범절의 생활화와 예제의 실시를 통한 사회의 예적 질서화 [예치(禮治)]이다. 예적 교화란 예의 정신을 구현하는 인간의 실천적 도덕성(명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민은 독자적인 강령이면서 또한 명덕과 연계되어 있고 8조목 상에서는 제가·치국의 근본이 되며 소강을 이룩하기 위한 예치와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3강령의 셋째는 지극한 선에 머무는 것[지어지선(止於至善)]이다. 셋째 강령은 먼저 평천하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지극한 선이란 천하에 밝은 덕이 숨김없이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성이 공평무사하게 구현된 상태를 말한다. 이 강령은 그러한 상태에 머무름 즉 도덕적 삶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머무를 곳을 알아야 하는 바 앞의 문제가 제기된다. 성인의 예를 들어 사람은 마땅히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삶은 예를 들면 “임금은 어진데 머물고, 신하는 공경하는데 머물고, 자식은 효도하는데 머물고, 부모는 사랑하는데 머물고, 사람들과 사귄데는 믿는데 머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의 모범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백성들은 광대한 덕과 지극히 착함으로 다스린 것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셋째 강령은 독자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첫째와 둘째의 강령을 종합하고 있으며 8조목의 평천하와 연관이 된다.

종합해보면 3강령은 평천하의 원리와 방법, 목표를 아울러 그 철학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명덕이라 하겠다. 평천하는 지도자가 숭선하여 명덕을 밝히 체득하고 나아가 덕으로 사람들을 교화하여 온 세상에 명덕이 행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지극한 선의 삶을 영위하는 태평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다.

3. 8조목: 평천하의 방법

「대학」의 8조목은 3강령을 토대로 군자의 입장에서 평천하하는 방법을 조건적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평천하의 선행조건을 따지는 방식과 덕의 실천된 결과로 평천하가 이루어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여기서

는 선행조건을 따지는 방식을 「대학」 원문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8조목은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상태를 말할 경우는 천하평(天下平)]를 말한다. 이것들은 전자가 후자의 선결조건처럼 설명되어 있어 각기 독자적인 단계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격물치지, 성의, 정심과 수신 그리고 제가, 치국의 세 가지 단계이다.

우선 격물치지와 성의, 정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격물치지는 성의의 조건이고 성의는 정심의 조건이 되나 크게 보면 이 모두는 수신의 조건 혹은 내용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하려는 것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의지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법이다. 격물치지는 우리의 행(행하여야)할 바의 이치를 모든 사물과 현상을 궁구하여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격물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식·지혜를 얻는 것이다. 치지의 앎은 주로 인간의 덕성에 대한 앎을 말한다. 「대학」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소홀히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그 안 것을 행하려는 의지의 정성됨과 마음자세의 바름을 더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덕의 내용에 대한 발견·획득보다는 그 덕성을 갖고 닦는데 더 중점을 둔 것이라 생각된다. “수신이란 정심하는 것이다”라는 말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성의란 마음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뜻하는(마음먹은) 바를[의(意)]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신독(慎獨)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더욱 조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정심이란 마음이 그 뜻한 바를 실행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아 바르게 작용함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격물치지, 성의·정심에 대해 종합해 보면 격물치지는 덕성을 체득하는 것이고, 성의·정심은 그 덕성을 성실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것은 수신 그 자체이다.

다음은 수신이다. “수신이란 자신의 덕을 닦는 것으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격물치지, 성의·정심 특히 정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慾)의 감정에 편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좋아하되 좋아함이 지나쳐 생기는 악함을 알고, 미워하게 될지라도 미워함에 빠져 그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수신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지만 평천하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일의 덕목이다. 한편 8조목의 체계상에서는 제가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마지막 단계는 제가·치국이다. 제가와 치국은 공통적으로 수신 덕목을 갖춘 자가 행하는 다스림의 행위이며 평천하를 이루는 그 자체로서 같은 성질의 것으로 분류된다.

제가란 가정을 구성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분수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여 질서를 이룸으로써 가정을 화평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덕목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윗사람에 대한 공경, 자식에 대한 자애, 형제간의 우애”이다. 제가는 치국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사회는 가정들을 기초단위로 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일은 다른 가정과의 연관 속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또한 가정에서는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학습된다. 그런 까닭에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덕성이 가정에서 길러진다. 따라서 제가는 넓게 보면 치국의 일환이며, 좁게 보면 치국의 선행조건이 된다. “한 집안이 어질면 나라에 어진 기풍이 일어나고 한 집안이 겸양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겸양해지고, 한 사람이 가정에서 잘못 자라 탐욕스러워지면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한 것이 그를 말한다. 한편 “가정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서는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자기 가정에, 형제들에게 잘하고 나서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치국이란 평천하의 실질적 방안이다. 각각의 나라가 잘 다스려져 도덕적 사회가 되면 나라들 간에 싸움 일이 없어져서 온 천하가 화평하게 된다. 나라를 잘 다스린 다함은 덕성을 체득한 어진 지도자의 교화와 모범으로 사람들이 인격을 갖추게 되고 사회에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화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치국의 기본은 지도자의 혈구지도(絜矩之道)이다. 지도자가 정치를 함에 혈구지도를 행하면 나라에 예적 질서가 바로서고 또한 이를 모범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혈구지도를 행하게 된다. 혈구지도란 무엇을 함에 있어서 타당한 법도를 세우고 그를 기준으로 헤아려 행위하는 것이다. 여기서 타당한 법도란 자신의 덕성에서 비롯된 판단이나 정서를 말하고, 헤아려 행함이란 그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그 기본 양식은 “윗사람을 미워하는 태도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을 미워하는 태도로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앞 사람을 미워하는 태도로 뒷사람에게 먼저하지 말고, 뒷사람을 미워하는 태도로 앞사람을 따르지 않으며, 오른편 사람을 미워하는 태도로 왼편 사람을 사귀지 말고, 왼편 사람을 미워하는 태도로 오른편 사람과 사귀지 않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혈구지도의 정치적 적용은 “위에 있는 자(지도자)가 솔선하여 늙은이와 어른을 대접하고 고아와 같이 어려운 이를 구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효도의 기풍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공손해지며 지도자에 대한 배반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위에서 행하면 아래서 본받는 방식이다. 지도자가 행하는 혈구지도를 “군자의 대도”라 하고 “충실함과 믿음으로 그를 얻을 수 있고 교만과 방자함으로 그를 잃는다”고 하였다.

치국은 덕[인(仁)]을 바탕으로 대도를 행하는 것이다. 즉 덕을 밝혀 체득하고 그에 입각하여 질서[예(禮)]를 확립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군자는 먼저 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그 용도가 있다. 이 근본적인 것과 말단의 것이 바뀌면 백성들이 다투어 쟁탈한다”고 하였다. 대도는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 사회정의적인 면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정치적 대도는 민본과 민의에 입각한 정치, 인물 본위의 정치다.²⁹⁾ 이에 대해서는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백성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백성에 대한 부모의 도리이다.”, “백성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백성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현명한 자를 보고도 등용하지 않거나 등용하더라도 빨리하지 못하는 것은 태만이다.”, “선하지 않은 자를 보고도 물리치지 않거나 물리치더라도 멀리하지 않는 것은 허물이다.”라고 하였다. 경제적 대도는 생산을 증대하고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사람은 많고 쓰는 사람은 적으며, 생산하는 사람은 빨리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천천히 하면 재물이 항상 풍족하다”고 하였다. 사회 정의적 대도는 재물의 의로운 사용, 독점 방지, 가벼운 세금, 공평한 분배 등이다.³⁰⁾ 이에 대해서는 “말을 기르는 이는 닭과 돼지를 살피지 않고, 얼음을 사용하는 경대부 이상의 집에서는 소와 양을 기르

29) 김철운(2001), 앞의 책, pp.219-226

30) 위의 책, pp.234-240

지 않는다.”, “제후(諸侯)는 재물을 모아들이는 가신(家臣)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가신을 둘 바에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가신을 두라. 이것이 나라는 물질적 이익으로써 이로움(유익함)을 삼지 않고 의(義)로써 이로움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어진 것을 좋아하는데 아래서 의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의를 좋아하면서도윗사람의 일을 끝마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창고의 재물은 자기의 재물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V. 결 론

유가사상은 무도(無道)와 비례(非禮)로 인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나라 사이에 싸움이 잦아져서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간 본연의 도덕성을 토대로 예와 덕을 행함으로써 참다운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평화 사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예기」 예운 편과 「대학」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대동의 이상과 평천하의 방법론이다.

「예기」 예운 편은 우선 평화의 이상적 모델로서 대동(사회)을 제시하고 있다. 대동은 온 세상의 사람들과 일이 공화(公化)되어 사사로움에서 비롯된 온갖 우환과 대립·갈등이 사라진 공동체의 평화이다. 이는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서 공의(公義)가 실현됨으로써 모두가 공도(公道)로서 크게 하나가 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꺼번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차선책으로 먼저 현실적인 소강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소강은 사사로움에서 비롯된 분란을 예적 질서의 확립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다. 이러한 평화의 구축 방안은 매우 현실적이며 예라는 행위규범과 제도를 통해 치자(治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를 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의식과 절차로부터 사회제도와 풍습 즉 예제가 성립되었고 그를 통해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며, 제사를 지내는 마음자세로부터 온갖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예의(예절)가 성립되고 그를 통해 인정(人情)을 순화하는 것이 예를 통한 다스림 즉 예치(禮治)이다. 지도자가 예를 숭수수법하고 이로써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은 다른 걱정 없이 서로 믿음을 갖고 오직 자기 분수에 따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

이 현실적인 평화 즉 소강이다. 이 소강이 이루어짐으로써 대동을 이를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평천하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평화의 상태는 대동의 평화와 연결됨을 암시하고 있다. 「대학」의 평화 실현 방안은 3강령을 통해 그 철학적 토대를 제시하고, 8조목을 통해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강령이란 명명덕(明明德)과 신민(新民) 그리고 지어지선(至於至善)이다. 명명덕은 인간 본연의 밝은 덕 즉 도덕성을 밝혀 개개인을 인격화하고 나아가 사회를 도덕화하는 것이다. 신민이란 명덕에 의해 인격화된 존재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어지선이란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지극히 선한 상태가 유지됨을 말한다. 이것들은 각각의 특성을 갖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서로 연관되어있다. 그 연관의 핵심은 바로 명덕 즉 인간 본연의 도덕성이다. 3강령은 8조목의 근거이자 수단으로 작용한다. 8조목이란 격물치지·성의·정심과 수신, 제가·치국 그리고 평천하이다. 격물치지·성의·정심은 수신의 조건이자 그 내용이다. 이는 덕성 체득의 방법과 체득된 덕성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성실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인데 특히 정심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수신의 핵심적 내용이다. 수신은 제가·치국의 바탕이 된다. 제가는 예적 질서로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것인데 가정이 갖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래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치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치국이란 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속해 있는 나라 즉 그가 속한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한 나라로부터 온 세상이 모두 평화롭게 되는 것이다. 치국의 기본은 혈구지도이다. 이는 타당한 법도를 기준으로 매사에 임하는 것이다. 타당한 법도란 보편적인 인간의 덕성과 정서이며 매사에 임한다 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행위를 말한다. 이 혈구지도는 특히 지도자가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덕목이다. 이런 의미에서 치국은 지도자가 덕을 밝혀 체득하고 사람을 대함(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 덕을 숭선수범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혈구지도(대도)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민본과 민의의 정치, 공평한 인재의 등용, 생산의 증대와 소비의 절제, 재화 사용과 분배의 정의 구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평천하이다. 이런 내

용들은 「예기」와 「대학」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서로 통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가의 평화 사상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의 평화 사상은 인간의 본래적 선함과 그 실현 가능성(도덕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은 천(天)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유가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상과도 구분되는 특징이며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유가 평화 사상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의 내용과 더불어 그 실현에 있어서 이상성(理想性)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유가의 평화 사상은 그 실현에 있어서 지도자에 의존하는 바가 심하다. 이는 유가사상이 나타나는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당시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질서와 체제를 합리화하고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이는 사람들을 진정한 평화 추구에 소극적이게 만들 수도 있고, 평화의 문제가 지도자의 양식과 의지, 능력에 좌우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유가의 평화 사상은 의미 있는 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의 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이를 가지고는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평화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면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첫째로, 유가의 평화 사상은 평화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군사적, 경제적인 면에서 갈등과 투쟁의 해결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학문적, 도덕적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구의 전통적인 평화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대의 전쟁문제를 재검토 하는데 있어서 사고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 계기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유가의 평화 사상은 그동안 우리가 지녀온 평화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평화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회의 이론과 가치관만을 갖고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는데 유가의 평화 사상은 이에 적절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로, 유가의 평화 사상은 닫힌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인류사회의 큰 변화에 따라 재조명되는 유가 평화 사상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인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온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볼 때 인류 사회는 지속적으로 팽창해온 열린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발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 사회는 이미 팽창의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지리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역사의 종언·철학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서구적 방법만으로는 제반 문제의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반면 동양 사회는 일찍부터 전체적 자연관과 문화적 인간관으로 닫힌 사회를 형성해왔다.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이 중요하며 문제의 해결은 지혜로운 관리에 의해 이뤄진다. 오늘날 인류 사회가 새롭게 닫혀버린 상황에서 닫힌 사회에서 기능해 온 사상이 하나인 유가사상은 평화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³¹⁾

참고문헌

「大學集註」

「禮記」

이민수 역해(1983), 「예기」 중권, 수문서관

학원사 편(1970) 「철학대사전」

유교사전편찬위원회(1990) 「유교대사전」, 박영사

김철운(2001), 「유가가 보는 평천하의 세계」, 철학과 현실사

뚜웨이밍, 정용환 옮김(2001), 「뚜웨이밍의 유학강의」, 청계출판사

송영배(1999), “유교의 ‘이상적 사회’관과 평화의 윤리”, 「유교사상 연구」 11집, 한국유교학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편(1995), 「평화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오석원(1999), “유교의 대동사회와 평화정신”, 「유교사상연구」 11집, 한국유교학회

첸리푸, 서명석·이우진 옮김(2000), 「동양의 인간과 세계」, 철학과 현실사

한국동서철학회·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2004), 「평화의 철학」, 국제학술발표회의 자료집

31) 최영진(2004), “21세기의 평화와 동양철학”, 「평화의 철학」(국제학술발표자료), pp.3-15 참조